

刊 行 辭

辛氏慕先錄編纂委員會

會長 辛 泳 柱

吾等辛氏는 距今約八百餘年前 始祖貞懿公께서 高麗仁宗朝에 官이 金紫光錄大夫門下侍郎平章事라는 最高顯職에 오른以來 高麗 最後의 王인 恭讓王에 이르기까지 凡十八代의 王朝에 亘하여 連綿히 簪纓世族 또는 文獻世家로서 高官大爵이 끊치지않던 自他共 認의 三韓甲族이었던 것이다.

李太祖成桂가 天下를 얻어 執權하자 多大數의 先祖께서 辛曉先祖(別項有名先祖參照)의 一黨이라하여 流配되었거나 誅되었으며 또는 鄭圃隱先生과 더불어 「忠臣은不事二君」이라는 높은 節介에서 隱遁韜晦·草野에 묻침으로서 吾等辛族은 衰退一路를 걸어왔음 은 天下가 周知하는 事實이다.

李朝에 있어서도 國家民族을 爲하여 崇高無比한 功勳을 세우신 先祖 또한 許多하거나와 이나라民族의 빛이요 太陽이라 할 不世 出의 人物인 우리의 先祖들께서 배풀은바 功績이 後世에 널리 알려지지않고 지나왔음은 吾等後昆들의 不察이라 할 것이니 남의 先祖의 功績이나 行狀을 知悉하기에 앞서 自我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며 自身的 偉大한 先祖의 行狀을 詳考하여야 될 것임은 贅 言을 不要할 것이다.

武節公과 같은 先祖는 倜儻不羈의 武官이면서도 愛民善政을 배풀으므로써 江陵民草에 依하여 「生祠堂」을 세워 奉祀한 稀有의 事實이라던지 文莊公 白麓先祖는 貞觀之治의 善政으로 또한 稀世의 碩學·文豪로서 一世를 鳴動하는 등 다른 氏族들이 내세우는 人物에 겨주어 秋毫도 遜色이 없을 뿐 아니라 이나라 國家民族에게 貢獻한바 功勳·기리 靑史에 빛나고 있거니와 이에 對하여 他 氏族은 姑捨하고 우리 後孫조차 모르고 지나왔음을 自愧不禁하는 바이다.

茲에 中央宗親會가 發起 主動이되어 累百年間에 걸쳐 寤寐不忘、宿題로 내려오던 先祖를 追慕함과 同時에 自我를 回顧하는 冊 子를 編纂刊行 하게되었음을 無上의 榮光으로 思料함과 아울러 九泉에 잠드신 先祖의 英靈앞에 敬虔한 마음으로 追慕의 默念을 리는 바이다.

序

自古로 世界萬邦이 우리나라를 가르켜 東方禮義之國 또는 君子之國이라고 呼稱하게된 緣由를 살펴 보면 이는 우리 民族이 各自의 先祖를 尊崇하고 一門一族이 相互和睦團合하는 固有의 美風良俗이 生活化하고 體質化하여 悠久半萬年 連綿히 흐르고 있는 傳統에서 基因된것이라 할것이다.

나의 親族을 아끼고 사랑할줄 모르는 人間에게 民族愛가 있을수 없는것과 같이 民族愛가 缺乏된 人間에게 어찌 祖國을 사랑하
는 거룩한 精神이 棲息할 수 있으랴!

나의 겨레를 아끼고 祖國을 愛護하는 心情은 實로 民族愛로부터 醇化되고 昇華되는것이라 할 수 있으니 如斯한 意味에서 吾等辛氏의 萬像一束인 慕先錄「辛氏의 祖先과 그 后孫」이라는 冊子를 編纂刊行하게 된것도 時宜에 適切한 壯舉라 할수 있다.

더구나 八・二五解放과 民族悲史인 六・二五動亂等 거듭되는 滄桑之變으로 史料의 逸失과 湮滅等 許多한 隘路를 打開하면서 如斯한 舉族的인 事業을 無難히 完遂함으로써 錦上添花格이 될것은 勿論 우리 宗族의 一致團合의 契機를 마련해준 有司宗親의 勞苦와 壯舉에 對하여 深甚한 敬意를 表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 民族의 悲願인 三八線으로 南北이 가로막혀 以北宗親의 近況을 蒐集못한채 이冊子를 刊行하게 되었음은 畫龍欠睛의 嘆이 없지 않으나 이 또한 國運이라 어찌할길 없음을 甚히 遺憾으로 생각한다 빨리 이冊子가 以北宗親에게도 頒布될 날이 오기를 心祝하면서 簡單한 燕辭로써 序에 代한다.

丁未歲暮

辛氏中央宗親會

顧問

辛

泰

嶽

序

在日本國辛氏宗親會

會長 辛

熙

한 뿌리에서 千枝萬葉을 펼치는 것이 나무요 한 근원에서 千派萬流로 흐르는 것이 물이라 사람亦是 비록 親疎와 遠邇는 같지 않을지라도 그 根源은 無非同祖의 一根一源인지라 出自根本을 모름이 어찌 理致리오 몸은 비록 異域에 處해있으나 마음은 진실로 본邦을 그리워하니 이 또한 人之常情이라 邇及邇대 그 根本出自를 알고자하는 心事湧出함이 亦是人間 生理일진대 吾宗일찌기 前代에 되지 못했던 本冊에 있어 그 錄表가 分明하고 昭然하여 便讀者로 하여금 祖先에 崇慕하는 마음이 油然而生기게하여 宗族和睦하며 德業을 相勸하고 過失을 相規하며 禮俗을 相交하고 患難을 相恤하여 서로 敦睦之義가 自然히 出著하게 했으며 疎者親하며 遠者邇케 했으며 況異域에서 비록 先塋을 모시어 弔唁지는 못하였을찌라도 本冊의 錄된 墓圖、齋圖 및 事蹟等 一目瞭然하여 忱惕之心이 반드시 장차 몸소 살필세라 이쥌 留念토록 囑어주신 이 莫重한 壯舉에 이 어찌 至重치 아니리오 이 萬像一束인 慕先錄「辛氏祖先과 그 後孫」을 吾宗 諸族께서는 빠짐없이 모셔서 家訓으로 삼으며 同時에 遺臭 萬年이요 遺芳百世라 했으니 先塋을 冒瀆하지 말고 百世遺芳하기를 祈願하면서 이 聖典을 編纂하신 有司諸宗의 勞苦와 그 壯舉에 對하여 衷心으로 讚辭를 드림과 同時에 深甚한 敬意를 表하여 序에 가름하는 바이다.